

기고

겨울철 전기화재,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하자

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실내 활동이 늘고 난방장치, 열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과 상가, 축사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특성상 전기화재는 초기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기량이 많아 대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전기화재의 대부분은 과부하, 과열, 접촉불량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다.

전열기구를 한 멀티탭에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접히거나 눌린 전선·전기장판으로 인한 과열, 오래된 전선 피복 손상, 차단기·배전반 내부 먼지로 인한 누전 등은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특히 열선의 겹침, 목은 만지, 느슨해진 전선 접촉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기 ▲멀티탭에 전열기구 2대 이상 연결 금지 ▲피복 손상 전선은 즉시 교체 ▲타는 냄새·스파크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전원 차단 ▲취침 전 난방기기 전원 OFF 확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시험 버튼으로 점검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화재를 미연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다.

전기화재는 화염 확산과 연기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화재에는 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합하다.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 이상 설치가 필수이며, 실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은 가족·직원 모두 숙지해야 한다. 또한 "경보음 울림 → 전원 차단 → 119 신고" 기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침착한 대처가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 하나로 시작되는 예방 가능한 사고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오늘 하루, 콘센트 하나, 스위치 하나부터 점검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민

벌써부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면면이 '도간개간'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현재의 정치 수준 그대로 내년도 지방선거 결과도 같은 거라는 불길함까지 느껴진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혐오감만 급증할 거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든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특정 정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매우 모범적으로

다. 악인이 죽어서 간다는 3가지 괴로운 세계를 말한다. 그 3가지에는 지옥도(地獄道), 축생도(畜生道), 아귀도(餓鬼道)가 있다.

그중 첫 번째 지옥도는 중생이 죄를 지어서 죽은 뒤에 태어날 지옥 세계를 말한다. 두 번째 축생도는 중생이 죄를 짓고 죽은 뒤에 짐승의 몸이 되어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아귀도(餓鬼道)다. 아귀도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그 음식이 불로 변하여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굶을 대로 굶은 상태에서 음식을 보면서도 먹을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거기에도 수없이 매까지 맞는다는 것

이다. 굶주림에 매까지 수없이 맞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 고통이 어떻겠는가를. 하기가 요즘 사람들은 풍요로운 세계에서 살기에 배고픔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먹기 싫어서 음식을 피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여하튼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유권자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정당을 떠나서 출마예정자들의 평을 잘 들어보길 바란다.

이 평에는 후보자의 지난 생활사 특히 어렸을 때의 삶의 족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외의 가정사 등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 프로이트(Sigmund Freud)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론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의 심리

적 뼈대 형성은 0~6세까지 거의 모두 형성되어 버린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늘 써왔던 '세 살 적 버릇이 여든 간다.'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는 말은 진리 중의 진리다.

프로이트 이론과도 매우 비슷하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터득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점들도 잘 여며가며 임해주길 바란다. 특히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의 텃밭이다. 하지만 공천을 잘못하면 반드시 표로써 응징해야 할 것이다. 당원모집도 지구당 위원장이나 강력한 선거출마자가 유권자들의 당원 원서를 접수할 게 아니라 당원이 되려는 당사자가 직접하는 것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정당은 이번 선거를 매우 모범적으로 치러주길 바란다. 특히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들을 잘 찾아서 후보자로 선택해 주길 바란다. 기존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당원과 지역민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 날이 올 것이기에 더더욱.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더라도,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합니다.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화재초기에 경보를 울려 대피시간을 확보하며, 초기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는 매우 큼니다. 실제로 주택

용소방시설이 설치된 가정에는 인명피해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방청 발표(2024년도) 소방청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캠페인 - 파이낸셜뉴스

"설마 우리집에서"라는 안일함은 화재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은 사소한 관심과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가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점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강진소방서 강진119안전센터 소방장 차혁진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음력 10월 16일)

48년생: 넉넉한 이해반이들임이 필요하다. 60년생: 신바람 놀이에 푹 빠지라. 72년생: 모든 게 새로운 출발선에서 보자. 84년생: 웃음이 먼저 나오는 감동에 빠져보자. 96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만세! 불려진다.

49년생: 불안한 지위내고 믿음은 지켜라. 61년생: 파이은 시선은 응원으로 돌아선다. 73년생: 목소리 높이고 투정을 부려보자. 85년생: 지은 과정을 되짚어보아라. 97년생: 출타하는 방식이 지은 시대에 맞아야 한다.

50년생: 반대도 만류도 모른 척해야 한다. 62년생: 화려한 전성기 비단길 열거보자. 74년생: 달남이 따줘야 원하는 걸 얻는다. 86년생: 혼자만의 세계 잘못된 일을 알아차려라. 98년생: 불만은 쌓았어도 할 일을 다해보자.

51년생: 신중하진 결론 돌리라. 63년생: 용기 있는 행동 박수는 덤으로 온다. 75년생: 행복에 겨운 모습 전치가 벌어진다. 87년생: 순순사가 아니면 구경에 그쳐보자. 99년생: 근사하게 멋있다. 칭찬을 들어보자.

52년생: 식어있던 열정에 청춘이 다시 온다. 64년생: 굳이 하는 지랑 경수만 갖어간다. 76년생: 오래 했던 부진 미침표가 찍혀간다. 88년생: 기회다 싶어도 방심은 금물이다. 100년생: 간절할 염원이 하늘에 닿아간다.

53년생: 기려 하지 마라. 재미로 해야 한다. 65년생: 고미운 소식이 선물까지 들고 온다. 77년생: 희망이 생겼는 제안을 들어보자. 89년생: 조용한 가운데 정상을 향해 가자. 101년생: 이름다운 상상은 현실이 되어간다.

54년생: 급하게 하는 결정 금방 후회된다. 66년생: 적게 기렸어도 포부는 크게 하자. 78년생: 자신감 상승 불가능에 도전하자. 90년생: 초라했던 단살림 부자가 되어간다. 102년생: 흥내 내면 순서 완벽함이 되어간다.

55년생: 대장장이 심정 담긴 걸을 더해보자. 67년생: 책에 있는 내용 육신 없이 가야 한다. 79년생: 고생의 결과가 반짝반짝 빛난다. 91년생: 깔끔한 마무리 흔적조차 지워라. 103년생: 총자 하는 모임에 등장을 서두르자.

56년생: 어깨너머 했던 걱정 바람이 쓸어간다. 68년생: 인생이력에 화려함이 붙어간다. 80년생: 경제적인 풍요 배부르고 따뜻하다. 92년생: 고집도 정도껏 미움이 되어온다. 104년생: 꿈에서도 있었던 만남을 가져보자.

57년생: 보고 싶던 얼굴 목은 회포 풀어 내자. 69년생: 남다른 능력자비 싸게 굴어보자. 81년생: 암적 축을 무용담이 펼쳐진다. 93년생: 어엿한 기쁨 책임으로 해야 한다. 105년생: 기쁨을 건네야 간짜가 보여진다.

58년생: 겨울은 익어가고 사랑은 깊어간다. 70년생: 재촉하는 부름도 모른 척해야 한다. 82년생: 미처 못한 허락 속제가 남겨진다. 94년생: 반갑지 않아도 의리를 지켜라. 106년생: 날아간 영영으로 날개를 펼쳐라.

47년생: 자꾸하는 간성 원망을 들어야 한다. 59년생: 말없는 도움에 급한 불을 꺼준다. 71년생: 모래위에 집 짓기 허상을 깨어내라. 83년생: 여러가지 의견생각을 달아라. 95년생: 있는 그대로 꾸미거나 더하지 마라.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권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부/1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